김재규(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1]) 1차 구술

1. **구술자**: 김재규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5월 19일
5. **구술장소**: 부산 동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시민교육원
6. **구술분량**: 08분 04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87년 2·7집회를 비롯한 부산민주시민협의회 활동

면담자 : 그때 당시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발기인으로 먼저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이제 부민협[2] 활동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재야운동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시 부민협에서 대통령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구술자 : 그래서 우리 부민협은 팔십오(85)년도부터 홍보활동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언론이 죽어있었잖아요. 소위 전두환 정권의 억압 정책에 그냥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신문에 이렇게 나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소위 피세일[3]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역에 우리 부민협 회원들이 막 이렇게 홍보물을 뿌리고 나눠주고 배포하고 이랬는데 그럴 때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아침 새벽에 같이 나와서 피세일을 하는 우리 회원들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밥도 같이 드시고, 아침밥도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민협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민협 활동을 예를 들면 그런 피세일이나 혹은 또 아마 권인숙 사건[4]이었는가 그때 인권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위를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조직해서 하거나 혹은 또 그때 노동운동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그런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

1) 2011년 5월 구술 당시 현직
2) 부산민주시민협의회의 약칭. 부산민주시민협의회는 부산지역에서 민주화 투쟁에 동참하던 민주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1985년 5월 3일 창립한 민주단체로 부산지역 재야민주세력을 총괄한 공개기구이자 운동의 구심체였다. 1986년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회장 송기인 신부, 부회장 최성묵 목사를 비롯해 상임위원과 통일, 노동, 인권 등 8개 전문 분과를 두었는데 노동문제분과를 노무현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사무국장은 김재규, 실무는 이호철, 이성조, 윤연희가 맡았다.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3>, 1998, 476~477쪽 참고
3) 유인물,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4) 1986년 7월 공개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말함.

그런 회원들하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지원해주고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변호사들보다도 앞장서서 노 대통령이 해주셨지요. 노 대통령은 좀 행동파였죠. 상임 아마, 위원이었죠, 그죠. 상임위원이었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부민협 활동 특히 회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지원도 해주시고 동참도 하시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분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면담자 : 그, 팔십칠(87)년 이(2)월 칠(7)일 날이에요. 고 박종철 군 부산시민추모제. 그때 당시 상황 기억을 좀 하실까요?

구술자 : 예, 추모제는 기억을 하지요. 그때 제가 집회를 주도하는 사회자의 한 사람이었고 저 말고 최병철이라고 그 친구하고 제가 둘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노 대통령도 또 김광일 변호사도 한 말씀씩 하셨지요. 하시면서 연행도 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유(6)월 항쟁의, 부산에서는 첫 전초전이었습니다. 그때 박종철 사건[5]이. 그 뒤에 이제 육십(6.10)사건[6]이, 박종철 사건을 기만했던 정부에 대해서 또 개헌문제를 들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팔십칠(87)년 이(2)월 칠(7)일, 이(2)월 칠(7)일날 집회, 전국적인 집회 속에 부산의 집회가 유(6)월 항쟁의 첫 서막을 여는 그런 모습으로 부산에서는 아주 크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이(2)월 칠(7)일 날까지 오는 데는 이제 노 대통령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종철 사건이 터지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돈도 부족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나름대로 비용이 좀 들잖아요. 모든 집회와 시위에는 나름대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 하는데 노 대통령께서 인자 김구 선생님의 글을, 김구 선생님의 글을 '민족통일'인가 하여튼 그런 글을 몇 점, 여러 점 기증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걸 액자로 표구(表具)를 한 거지요. 해가지고 부산 변호사들 자기가 아는 분들한테(웃음) 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마 변호사님들이 많이 지지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이래서 돈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그야말로 큰 힘이 되었지요. 그거 가지고 전단도 만들고 저희들 이칠(2·7), 박종철 사건의 준비도 좀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칠(2·7)집회가 한 몇 년간

5)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벌어졌음.
6) 1987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를 위한 국민대회'(6·10 국민대회)를 말함.

의 참 힘들었던 소위 그 대중집회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처음에는 몇 백(100)명에서 몇 천(1,000)명,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만(10,000)명, 이만(20,000)명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산시민들이 그때 시위를 전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노 대통령께서 이제 반정부 투쟁 이야기도 해주셨고 연행도 아마 됐죠? 그때 그래가지고 영장이 몇 번인가

면담자 :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그날 네 번 기각됐죠.

구술자 : 네, 기각이 되고 그랬지요. 그래서 참 어쨌든 대단히, 이칠(2·7)사건으로 영장이 네 번 기각되고 하면서 마, 부산에서는 야단이 났었지요. 그때. 영장을 네 번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석방이 됐죠. 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각오하신대로 당당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구술자 주요이력

1948. 부산 출생
1968. 부산고등학교 졸업
1974. 부산대학교 무역학 학사

1971.10 교련강화·학원병영화 반대투쟁으로 제적
1974.04 유신거부 투쟁·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1981.09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4.06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1985.0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국장
1987.05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1989.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부의장
1992. 민주당 부산 금정구지구당 위원장
1994.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상임운영위원
1994.04 부산지역정책연구소 소장
1996. 민주당 부산 금정을지구당 위원장
1998. - 2010.0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1999. - 2002. 부산민주공원 관장

2002.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부산본부장
2003.07 - 2006.07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2010.03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2012년 현재)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로 변론을 맡은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처음 만났다. 1983년 12월 출소 이후 1984년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국장,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으로 '노변'과 80년대 부산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다. 3당 합당 이후인 1992년, 1996년 총선 당시 노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해 낙선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부산민주공원 관장 등을 거쳐 2012년 현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